

주상절리 가로폭 7m 세계 최대...세계 유산 가치 충분



무등산 주상절리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29 국가대표 지질명소

천왕봉·광석대·역새평전 등 22곳
수천만년 기후후 식 '지질 학습장'
광주시,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광주시는 최근 국립공원 무등산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무등산 세계 명품화 사업 중 하나인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독도와 제주도 등 2곳이며, 제주도는 섬 전체가 국내 1호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하다.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곧 유네스코 후원 프로그램인 세계지질공원망에 가입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명품공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첫 단계로 내년 2월 국가지질공원 승인을 자신하고 있다. 이후 세계지질공원 승인을 무난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무등산은 주상절리 등 지질명소가 많고, 지질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 행정 시스템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무등산의 국가지질공원 대상지는 광주 93.7km(76.86%), 화순 15.5km(12.70%), 담양군 12.7km(10.44%) 등 국립공원 무등산보다 넓은 121.9km 지역이며, 지질명소 22곳이 포함됐다.

광주시가 제출한 무등산 지질명소의 지질학적 특성 등을 살펴봤다. ◇무등산 정상 3봉(천왕봉·인왕봉·지왕봉)=무등산 최고봉(해발 1187m)에 위치하고 있으며, 8500만년 전부터 형성된 무등산 최후기 주상절리대다. 절리면 너비가 약 2~3m에 이르는 대형 주상절리대로, 암괴류(너덜)도 분포돼 있다.

◇서석대=해발 1050m 지점에 높이 30m, 너비 1~2m의 돌기둥 20여개가 300~400m에 걸쳐 병풍처럼 펼쳐진 세계적으로 희귀한 주상절리대다. 노을이 질때면 수정처럼 강한 빛을 낸다고 해 '서석의 수정병풍'이라 불리기도 한다. 천연기념물 제465호다.

◇입석대=8500만년 전의 지질 형성사와 11만년 전의 기후변화 노출사를 간직하고 있다. 해발 950m 지점에 전체 폭 120m, 높이 20m~30m, 너비 1.5m 안팎의 5~6각형 돌기둥 40여개로 이뤄진 주상절리대다. 입석대 상부에는 이르기 전설을 가진 높이 10m의 승천암 주상절리대가 있다. 천연기념물 제465호다.

◇광석대=해발 950m에 자리잡고 있으며, 높이 30m~40m, 육각기둥 최대 너비가 7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상절리대다. 학자들은 세계를 대표하는 지질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규봉으로도 불린다.

◇신선대와 역새평전=무등산 주상절리대 초기 형성과 풍화 그리고 지구환경변화를 알려주는 지질유산이다. 해발 750m의 북산에 위치한 주상절리대로, 8700만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시기에 형성됐다. 역새평전은 과거 주빙하환경(周氷河環境)에서 평탄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 곳으로 지구환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곳이다.

◇덕산너덜=동화사터와 중봉 사이 주상절리대가 무너지면서 형성됐다. 국내 최대(길이 600m, 폭 250m) 규모의 암괴류(너덜)로, 주빙하기 이후 풍화로 형성된 지구환경 변화의 산교육장이다. 도심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다.

◇지공너덜=너덜의 기원과 형성사를 나타내는 대규모 암괴류 지대다. 화학적 풍화와 관련된 미지형 및 빙하기를 겪었던 무등산의 발달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지질유산이다. 주변 경관도 뛰어나다.

◇무등산 풍혈=누에봉에서 꼬막재 사이 해발 850~900m 지점의 너덜에서 만들어진 풍혈지구대다. 무등산 정상 부위 반경 300m 지점에 20여개가 군집해 있으며, 세계적 규모를 자랑한다.

◇백마능선=해발 800~900m 사이의 장불재에서 낙타봉을 거쳐 안양산으로 이어진 2.5km의 대규모 능선으로, 백마의 잔등 모양 지형 위 역새의 모습이 백마의 갈기와 비슷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장불재=평탄면 내에 경사가 급한 단애와 완만한 사면이 교대로 나타나는 곳이다. 대규모 역새 군락도 장관이다. 장불재 사면은 5만~6만년 전 동결융해(凍結融解)에 따른 사면평탄화 과정으로 암괴들이 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형성됐다.

◇시무지기폭포=광석대 아래 해발 700m에 위치한 천연폭포다. 높이 72m에 3단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암석 형성 당시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다. 지질 및 지형학적 유산지구이기도 하다.

◇운필봉 자연동굴=최장 21m, 높이 3.7m, 폭 13m의 석굴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에선 희귀한 대형 천연동굴이다. 미문상화강암(微文象花崗岩)이 차별풍화(差別風化)돼 형성된 타포니(벌집 모양의 지형) 동굴로도 유명하다.

◇충효동 점토광물산지=분청사기와 백자 제작에 사용된 무등산 유일의 점토광물산지다. 신생대 제4기 문화재 지질학을 연구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의상봉=미문상화강암에서 화학적 풍화로 형성된 둥근 형태의 장축(170cm이상) 지형을 가진 나마(접시 모양의 풍화형)와 토르 지형으로, 지형변화를 관찰하기 좋은 장소다.

◇새인봉=유상구조가 잘 발달한 도곡유문암 지역으로 측면에 수직절리, 정상부에 수평절리가 발달한 무등산의 대표적인 암석 지형이다.

◇중심사 계곡 안산암질용암=사할과 계곡이 어우러진 지질교육장이다. 다양한 지질구조를 보이는 지역으로 화산암 생성사와 지질구조 및 풍화지형을 알 수 있는 지질학습장이기도 하다.

◇미집봉 유문암동굴=풍화지형의 형성과정과 민간신앙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지질명소다. 관상절리가 잘 발달한 도곡유문암이 수직·수평절리의 지속적인 풍화로 형성된 높이 3m, 폭 8m의 자연동굴이다. 동굴 상부의 돌탑은 자연과 인간활동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무등산 광주화강암=취라기(중생기 중기) 광주화강암의 표식지이자 다양한 지질구조를 엿볼 수 있는 도심형 지질학습장이다. 광주의 대표적인 취라기 광주화강암체의 노두(지표에 드러난 암석·지층)로, 단층과 단층활면 등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금당산 미문상화강암=백악기 후기 다양한 관입(마그마가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현상)구조를 볼 수 있는 지질명소로 정동구조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화방산 열리상화강암=우리나라 남부에 위치한 호남전대대의 합몰체 기반인 광주화강암 표식지로, 다양한 화강암 열리(구성물질의 입도나 조성의 차이 때문에 지층에 생긴 줄무늬 배열)구조와 암맥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다.

◇주남 화순안산암=광주지역 능주합몰대에 분출 또는 관입한 대규모 중생 화성암류다. 이 지역은 안산암질용암, 안산암질용암, 관입암으로 형성된 화순안산암의 대형 노두 지역이다. 안산암질용암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희귀 암석이다.

◇만연사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무등산의 최하부 기반암인 화강편마암 지역이다. 20억년 전 원생누대에 형성된 암석으로 무등산 암층 중 가장 오래된 암석 지역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조규일 작 '무등산 설경' (1990년)

캔버스에 유채(112.1 x 193.9cm·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오지호 화백의 제자인 조규일 화백의 작품은 '남도적 구상 회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조 화백은 단순한 대상을 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에 내재한 은밀한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무등산 설경'은 그의 대표작이자 남도구상주의의 백미로 꼽힌다. 어둡고 무거운 색조로 표현된 작품에서는 무등산과 자연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조 화백은 "무등산은 남도의 서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이라며 "무등산 설경을 그릴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에 아파트나 빌딩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산을 가로막고 있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경동 179-59 T.062-369-9227

농성역
광주광역시 서구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